

---

# 토론의 이해와 실습

---

2015. 2.



민주시민정치교육 전문기관

선거연수원

<http://www.civicedu.go.kr>

# 제 1 편

## 강의교재

---

학습지도안 .....	1
제1장 커뮤니케이션 .....	5
제2장 토 론 .....	10
제3장 토론실습 운영방안 .....	16
참고문헌 .....	20

---



## 학 습 지 도 안

### ■ 학습 목표

1. 토론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2. 합리적인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토론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주적 의사과정과 절차를 존중하는 소양을 기른다.

### ■ 단원별 학습 목표

#### 제1장 커뮤니케이션

1.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토론 사례들을 살펴본다.
2. 설득의 요소, 스피치 조직,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청중에 따른 스피치 전략 등을 익힌다.

#### 제2장 토론

1.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2. 교차조사 토론형식, 의회형 토론형식, 칼포퍼 형식 등 다양한 토론형식에 대해 학습한다.

#### 제3장 토론실습 운영방안

1. 반 전체를 긍정측, 부정측으로 나누어, 각자 10가지 근거를 15초 이내 문장으로 적으면서 브레인 스토밍 한 후, 조별로 토론에 이어 각 조의 대표가 발표를 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며 자연스럽게 토론에 익숙해 지도록 한다.
2. 구체적인 토론실습 운영방안을 살펴본다.  
팀 구성방법, 논제 선정방법, 학생들의 토론 평가방법 안내, 토론 플로우차트 작성 등의 방안에 관해 학습한다.
3. 토론실습에 있어서의 성공, 실패사례를 소개하며 토론전략표, 플로우차트, 토론채점표 등을 통해 토론내용 구성에 관해 익힌다.

## ■ 학습자의 특성 분석

학습자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 수업을 할 것인지를 파악한다.

## ■ 학습자 분석에 따른 교수방향

1. 학습자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 토론이론 보다는 토론실습에 비중을 더 두며, 반 전체를 긍정측, 부정측으로 나누어, 조별 토론에 이어 각 조의 대표가 발표를 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며 자연스럽게 토론에 익숙해 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2. 학습자가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 토론이론과 토론실습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반 전체 토론과 함께 논제선정방법, 토론전략표, 플로우차트, 토론심사표 등을 활용하여 토론수업을 심화시키도록 한다.

## ■ 교재의 내용과 구성

단 원 명	주요 학습 내용	비 고
제 1장 커뮤니케이션	1. 스피치, 토론, 토의 2. 설득의 요소 3.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화법 4. 좋은 연사의 조건 5. 청중의 이해 6. 스피치 평가	
제 2장 토 론	1. 토론의 교육적 효과 2. 토론 논제 3. 토론의 형식 1) 교차조사 토론형식 2) 의회형 토론형식 3) 링컨-더글러스 형식 4) 칼 포퍼 형식	
제 3장 토론실습 운영방안	1. 반 전체 토론 2. 조별 토론 3. 토론수업 준비물 4. 토론실습에 있어서의 사례소개	

## 제 1 장 커뮤니케이션

### 학습목표

1.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토론 사례들을 살펴본다.
2. 설득의 요소, 스피치 조직,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청중에 따른 스피치 전략 등을 익힌다.

### 1. 스피치, 토론, 토의

스피치는 구술 커뮤니케이션(Oral Communication) 또는 공적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이라고도 칭해지며,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의도적이며 목적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이다. 토론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전개하고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며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다.<sup>1)</sup>

대화법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를 꼽을 수 있다. 아테네 시민들은 아고라(Agora)라는 광장에 모여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변론을 하기도 하였으며 아고라는 정책결정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아고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었으며 토론의 역사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다.

토론은 광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토론은 영어의 디베이트(Debate), 토의는 디스커션(Discuss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론과 토의는 공동체의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각자 주장을 내세우며 논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고, 토의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최상의 해답을 찾기 위해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토론은 특정한 형식과 절차를 가지며 토의는 특정한 형식없이 자유롭게 의논하고 발언하는 특징을 지닌다.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토론은 긍정과 부정 즉 정(正)과 반(反)의 의견대립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변증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변증법은 라틴어로 다이알렉티카(dialectica)이며 본래 의미는 '대화·문답'이다. 토론에서는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이 중요하다.

〈 표 1 〉 토론과 토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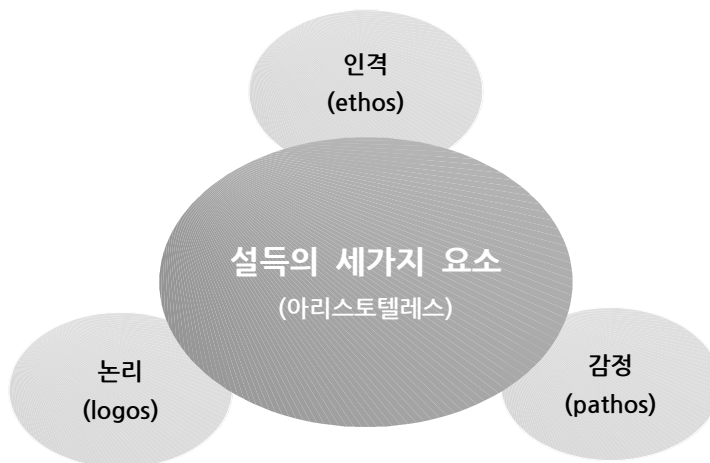
구분	토론(debate)	토의(discussion)
방법	특정한 형식과 절차를 가짐	특정한 형식 없음
수단	갈등해소	문제해결
전제	의견 대립 존재 인정	의견 대립 지양
과정	논제에 대한 해답을 가짐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음
절차	주장의 증명, 검증과 논거 제시	협의, 논의

출처: 이상철·백미숙·정현숙, 2009, 『스피치와 토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 250. (재구성)

## 2. 설득의 요소

토론에 있어서 설득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고전적 수사학에서는 설득의 요소로서 논리(logos), 감정(pathos), 인격(ethos)을 꼽았다. 논리(logos)의 뒷받침과 함께 정서적 호소를 담당하는 감정(pathos)과 더불어 인격(ethos)이 설득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다. 인격(ethos)은 신용의 바탕이며 신용이 있으면 설득력이 강해진다. 설득을 위해서는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며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사의 인품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1 〉 설득의 요소



### 3.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화법<sup>2)</sup>

#### 1) 로고스(logos)의 법칙

로고스는 논리 혹은 말이란 다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논리의 전개에는 연역법, 귀납법, 인과론 등이 있다. 연역법은 일반적 진리에서 특수한 진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며 예를들어 삼단논법은 연역적 논거에 해당한다. 귀납법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사실을 관찰하고 비교,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법이다. 인과론은 어느 결과든지 원인없는 결과는 없으며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이론이다. 어떤 논리 전개 방법을 택하든지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연역적 논거 (삼단논법)
대전제: 모든 동물은 죽는다. 소전제: 개는 동물이다. 결론: 그러므로 개는 죽는다.

귀납적 논거
사실 1: 식물은 영양을 섭취해야 성장한다. 사실 2: 동물도 영양을 섭취해야 성장한다. 사실 3: 사람도 영양을 섭취해야 성장한다. 일반적 원리: 그러므로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야 성장한다.

인과적 논거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죽는다. (산소부족은 죽음의 원인이다)

#### 2) 파토스 (pathos)의 법칙

파토스의 법칙은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격을 갖추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설득에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윤치영, 2009, 『1% 리더만 아는 토론의 기술』, 미래지식, pp. 196-197.



### 3) 에토스 (ethos)의 법칙

에토스의 법칙은 화자의 공신력으로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즉 인격적인 감화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토스는 청중이 연사에 대해 갖는 공신력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 4. 좋은 연사의 조건

스피치는 ① 명쾌해야 하며 (clear), ② 간결해야 하며 (simple) ③ 구체적이어야 한다 (concrete). 좋은 연사의 조건으로는 전문성과 진실성, 열정, 매력을 꼽을 수 있다.<sup>3)</sup> 청중이 연사를 평가하는 요소에는 보통 이 네 가지가 포함되고 있다. 전문성에는 연사가 주제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또는 정보 정도도 해당된다. 진실성은 연사의 공신력에 관한 것으로서 청중이 연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요소이다. 청중에게서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봉사 활동, 가치관 등을 밝힘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솔직담백한 화법을 이용하거나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열정은 적극적인 태도와 자신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정했을 때 더 열정적으로 스피치에 임할 수 있다. 매력은 청중으로 하여금 연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매력은 따뜻함, 친근함, 호감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대화체의 발표나 청중과 동일시하는 어법 등도 청중의 호감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 5. 청중의 이해

스피치에 있어서 청자분석과 정황분석은 필수적이다. 청자가 개인이거나 소수일 경우에는 정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다수의 청중일 경우에는 개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청자 분석에 있어서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업, 종교 등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청자의 여건과 정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모임의 유형, 프로그램의 성격, 참석자의 구성형태,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 파악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모임의 성격상 화제가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주제나 화제도 조정되어야 하며, 집단의 성격상 어떤 수준으로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의 길이와 톤 등도 달리 해야 한다.

3) 이상철·백미숙·정현숙, 2009, 『스피치와 토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p. 26-31.

〈 표 2 〉 청중의 태도에 따른 스피치 전략

청중의 태도		
우호적 청중	적대적 청중	중립적 청중
공감하는 부분을 단순히 강조한다. 주장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공감하지 않는 부분만 설명하고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중을 비난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공통점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한다. 청중의 태도를 한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다. 주장은 맨 나중에 한다.	관심을 갖도록 자극을 준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 표 3 〉 주제에 대한 청중의 지식수준에 따른 스피치 전략

주제에 대한 청중의 지식수준		
지식이 많은 청중	지식이 적은 청중	무관심한 청중
기존의 지식위에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다.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지어 설명한다.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기초부터 설명한다.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서론에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본론에서도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 6. 스피치 평가

〈 표 4 〉 스피치 평가표

이름	내용			전달		개인의견(4) 복장 및 시간 (+/-1) (총5점)	총점 (30)
	논리/구성 (5)	언어/기법 (5)	창의성/준비 (5)	표현/음성 (5)	태도/자세 (5)		

## 제 2 장 토 론

### 학습목표

1.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2. 교차조사 토론형식, 의회형 토론형식, 칼포퍼 형식 등 다양한 토론형식에 대해 학습한다.

### 1. 토론의 교육적 효과

토론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sup>4)</sup>

첫째, 토론은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둘째, 토론은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준다.

셋째, 토론은 상대방과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말하는 상호작용이다. 토론자들은 자신의 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며 설득력 있는 어휘나 구절에 대한 감각을 익히게 된다. 따라서 토론은 글쓰기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넷째, 토론은 지식을 통합하는 방법을 함양한다. 토론자는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주장, 논거, 근거,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게 되며, 토론자들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전개하는 훈련을 함으로서 지식을 통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다섯째, 토론에서 상대방의 토론 내용을 비판적으로 듣고 상대 논리의 허약한 부분이나 오류를 찾아가며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 교육은 비판적 듣기 능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도 가진다.

여섯째, 토론은 합리적인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토론교육은 민주적 의사표현 원리 체득에 도움이 되며 민주적 의사과정과 절차를 존중하는 소양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곱째, 토론의 논제들은 공동체의 현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토론교육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게 된다.

4) 이상철·백미숙·정현숙, 2009, 『스피치와 토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p. 251-254.

## 2. 토론 논제

논제는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sup>5)</sup>

찬반 양론이 성립되어야 한다.

하나의 과제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논제의 표현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논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 토론의 형식

### 1) 교차조사 토론형식 (CEDA)

####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토론교육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각 팀은 2명으로 구성되며 각 토론자는 입론-질문-반박을 한번씩 총 3번의 발언기회를 갖는다. 다른 토론 형식보다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으나 즉석에서 질문을 구성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의 허약한 부분이나 오류를 찾아가며 토론하는 장점이 있다. 작전타임은 주로 상대 입론 후 자기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이용한다.

〈 표 5 〉 교차조사 토론형식

순서	토론절차	발언시간(예)
1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4분
2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2분
3	부정측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4분
4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2분
5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4분
6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2분
7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4분

5) 전영우, 2003, 「토론을 잘하는 법」 거름, pp. 96-97.

순서	토론절차	발언시간(예)
8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2분
9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3분
10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3분
11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 반박	3분
12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 반박	3분
	작전타임	팀당 4분
	소요시간	총 36분

## 2) 의회형 토론형식 (Parliamentary Debates)

영국의회 토론의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1820년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회가 행하던 토론형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각 팀을 2인으로 구성할 경우, 한 팀은 수상과 여당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한 팀은 야당대표와 야당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토론 중에 인쇄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토론중에 따로 질문시간을 배정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상대방이 발언하는 동안 상대방의 양해를 얻은 보충질의, 의장의 양해를 받은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을 할 수 있다.<sup>6)</sup>

〈 표 6 〉 의회형 토론형식

순서	토론절차	발언시간
1	수상의 입론	7분
2	야당대표의 입론	8분
3	여당원의 입론	8분
4	야당원의 입론	8분
5	야당대표의 반박	4분
6	수상의 반박	5분
	소요시간	총 40분

6) 한상철, 2006, 『토론: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토론분석과 응용』, 커뮤니케이션 북스, pp. 176-177.

보충질의는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팀에 요구하며 입론시작 후 1분, 끝나기 전 1분 동안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반박시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질문시간은 15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보충질의는 보통 영국의사당에서 하듯이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한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뺨은 채로 일어나 상대발언자를 쳐다보는 제스처로 하는 것이 관행이다. 보충질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잠시 질문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발언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충질의를 요청한 토론자는 자리에 다시 앉아야 한다. 보충질의 시 발언을 하고 있었던 상대토론자가 중지요구를 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보충질의는 짧은 주장, 간단한 질문, 설명 요구 등을 위해 사용된다.<sup>7)</sup>

의사진행발언은 보충질의처럼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며 상대팀이 토론시간을 많이 초과하는 등 토론의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나 이미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반박시간에 제기하는 경우 등에 의장에게 요청하며, 요청이 심의되는 동안에 토론 시간측정 타이머는 멈춘다. 의장은 '인정합니다' 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로 판결한다. 의장이 '인정합니다' 라고 판결할 경우 점수가 감점 될 수 있다.<sup>8)</sup>

신상발언은 상대방이 인신 공격성발언을 하거나 자신의 주장이나 근거 혹은 정보에 대한 왜곡발언을 할 때에 의장에게 요청한다. 요청이 심의되는 동안은 토론시간측정 타이머는 멈추며, 의장은 '인정합니다' 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로 판결하며, 의장의 판결 이후 토론은 속개된다.

### 3) 링컨-더글러스 토론형식

1858년 아브라함 링컨과 스테픈 더글러스 사이에 있었던 노예제도에 관한 토론에서 기인한 일대일 토론방식이다. 1980년 미국 전국 토론대회(NFA)에서 발언 시간을 한정시킨 유형이 채택되면서 유행하게 된 토론방식이다. 긍정측 토론자가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며 토론의 마지막 반박 순서도 긍정측이 갖는다. 부정측은 입론에서 1분을 더 배정받고 긍정측은 반박에서 1분을 더 배정 받는다. 긍정측과 부정측은 동일한 토론시간을 가지며 반박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없다.<sup>9)</sup>

7) 한상철 2006, 『토론: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토론분석과 응용』, 커뮤니케이션 북스, pp. 196-197.

8) 한상철 2006, 『토론: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토론분석과 응용』, 커뮤니케이션 북스, pp. 196-197.

9) 한상철 2006, 『토론: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토론분석과 응용』, 커뮤니케이션 북스, pp. 176-177.

〈 표 7 〉 링컨-더글러스 토론형식

순서	토론절차	발언시간
1	긍정측 입론	6분
2	부정측 질문	3분
3	부정측 입론	7분
4	긍정측 질문	3분
5	긍정측 반박	4분
6	부정측 반박	6분
7	긍정측 반박	3분
소요시간		총 32분

이러한 진행방식의 배경에는 긍정측은 증명의 부담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이 작용하고 있으며, 부정측은 긍정측 주장을 반박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측은 입론과 반박에서 긍정측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정 받는다.<sup>10)</sup>

#### 4) 칼 포퍼(Karl Popper) 토론형식

열린 사회 연구소 (open society institute)와 소로스 재단 네트워크가 1994년에 만든 토론방식이다. “비판적 사고는 대화와 공적 토론의 협동과정(collaborative process)이며 지식이란 예측과 반증을 통해 진보한다”고 한 철학자인 칼 포퍼를 기념하여 이 토론형식을 칼 포퍼 형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토론형식에서는 세 명의 토론자가 한 팀이 되어 각 팀이 한 번의 입론과 두 번의 반론, 두 번의 교차조사를 하게 된다. 마지막 반론에서는 질문시간을 두고 있지 않다. 부정측이 마지막 발언기회를 가진다.

〈 표 8 〉 칼 포퍼 토론형식

순서	토론절차	발언시간(예)
1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6분
2	부정측 세 번째 토론자의 질문	3분

10) 한상철 2006, 『토론: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토론분석과 응용』 커뮤니케이션 북스, pp. 176-177.

순서	토론절차	발언시간(예)
3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6분
4	긍정측 세 번째 토론자의 질문	3분
5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	5분
6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질문	3분
7	부정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	5분
8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질문	3분
9	긍정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론	5분
10	부정측 세 번째 토론자의 반론	5분
작전타임		팀 당 8분
소요시간		총 52분

칼 포퍼 형식의 특징은 팀당 3명의 토론자로 구성되어 팀워크가 강조되는 토론 형식이며 팀 내의 의사소통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기르기에 적합한 토론형식이다. 또한 질문을 통한 검증을 통해 토론에서 상대의견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이 강조된 토론형식이다.<sup>11)</sup>

11) 한상철 2006, 『토론: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토론분석과 응용』 커뮤니케이션 북스, pp. 188-189.



## 제3장 토론실습 운영방안

### 학습목표

1. 반 전체를 긍정측, 부정측으로 나누어, 각자 10가지 근거를 15초 이내 문장으로 적으면서 브레인 스토밍 한 후, 조별로 토론에 이어 각 조의 대표가 발표를 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며 자연스럽게 토론에 익숙해 지도록 한다.
2. 구체적인 토론실습 운영방안을 살펴본다.  
팀 구성방법, 논제 선정방법, 학생들의 토론 평가방법 안내, 토론 플로우차트 작성 등의 방안에 관해 학습한다.
3. 토론실습에 있어서의 성공, 실패사례를 소개하며 토론전략표, 플로우차트, 토론채점표 등을 통해 토론내용 구성에 관해 익힌다.

### 1. 제1단계 : 반전체 토론

- ① 반 전체를 각 조 당 4-5명씩 10개조를 구성하여 1, 2, 3, 4, 5 조는 긍정, 6, 7, 8, 9, 10조는 부정으로 나눈다. 각 조마다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준다.

논제 예시: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긍정측 (1조 - 5조)

- 1조: 논제현안의 문제점 및 찬성이유
- 2조: 찬성논거의 중요성, 시사점
- 3조: 정책개발
- 4조: 부정측 방안 추정과 이에 대한 질의방법 및 반론개발
- 5조: 부정측 방안 추정과 이에 대한 부작용

#### 부정측 (6조 - 7조)

- 6조: 논제 현안 폐지로 인한 문제점 및 반대이유
- 7조: 현안이 뛰어난 이유
- 8조: 현안의 시사점
- 9조: 긍정측 방안 추정과 이에 대한 질의방법 및 반론개발
- 10조: 긍정측 방안 추정과 이에 대한 부작용

- ② 각 조마다 주어진 논제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에 대한 10 가지 근거를 브레인 스토밍한다.
- ③ 근거를 10초 혹은 15초 이내의 짧은 문장으로 개발한다.

- ④ 각 조의 대표가 10가지 근거를 발표하도록 한다.
- 1조 → 6조 → 2조 → 7조 → 3조 → 8조 → 4조 → 9조 → 5조 → 10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한다.

## 2. 제2단계 : 조별 토론

### ● 토론실습 시 유의사항

- ① 토론팀을 구성한다.
- 40명인 경우: 4인 1조를 기본으로 한다. 10팀으로 구성한다.
  - 팀 구성후 1-2조, 3-4조, 5-6조, 7-8조, 9-10조간 토론을 실행한다.
- ② 조별로 토론 논제를 정한다. (5종류 선정)
- ③ 평가에 대한 안내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심사 평가하도록 한다.
  - 1-2조가 할 때 5-6, 3-4조일 때 7-8조, 5-6 조일 때 9-10조, 순으로 한다.
  - 심사평도 될 수 있는 한 학생들 스스로 1-2 분 내외로 하도록 한다.
  - 심사평 그 자체도 다른 발표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대개 3여명 정도가 심사평을 하는 것이 좋다.
  - 주어진 토론 평가표를 통해 팀 채점 평가 방법 외에 다양하게 개인 평가를 하게 한다.
- ④ 토론 내용 플로우차트 작성
- 1, 2조가 토론할 때 3, 4조는 심사 위원이며 5, 6조는 토론 내용 플로우차트를 작성하게 한다.
  - 8명 전원 플로우차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작성자중 2-4인이 토론 내용에 대한 주요 포인트, 공격과 방어 특이성, 기타 특이사항 및 논리를 발표하도록 한다.
  - 교육 효과: 플로우차트를 작성하고 구술적 설득에 치중한 심사조와 심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토론 내용의 논리적 전개와 구성이 구술적 설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 위와 같이 수업을 운영하면 매 수업마다 40명 클래스의 80% 이상의 학생이 토론에 집중하게 된다.
- ⑤ 토론장면은 가능한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영상을 분석한 후, 본인 토론모습에 대한 소감문을 쓰게 한다.

### 3. 토론수업 준비물

- 타임 워치 (1명 혹은 2명의 고정 타임 키퍼를 정하면 좋다)
  - 타임 워치는 제한 시간 1분전 남은 시간 1분전에 1분이라고 표시된 표지판을 들어 보인다.
  - 제한 시간 30초 전 30초가 표시된 표지판을 들어 보인다.
  - 남은 시간이 0초에는 0초가 표시된 표지판을 들어 보인다.
  - 제한 시간 10초 혹은 15초 경과엔 타임아웃을 외친다.  
(1분, 30초, 0초등을 두꺼운 용지로 각각 다른 색깔로 만들어 사용한다)
- 토론 플로우차트
- 토론 심사표

### 4. 토론실습에 있어서의 사례소개

#### ● 유의사항

- 팀구성
  - 1조A, 1조B, 1조C, 1조D, 2조A, 2조B, 2조C, 2조D, ... 10조A, 10조B, 10조C, 10조D 등의 카드를 만들어 학생들이 카드를 하나씩 뽑도록 하여 팀을 구성한다.
- 논제 선정
  -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제한적이지 않고, 찬반의 논거가 균형을 이루도록 논제를 선정

- 논제 자체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하며, 교사는 조연자의 역할을 한다.
- 토론평가
  - 교사가 학생들의 토론을 평가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다른 학생들의 토론을 평가하게 한다.
  - 학생들의 평가 중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 내용은 교사가 보충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토론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토론자가 자기 모습을 평가하여 스스로 소감문을 작성하게 한다.

● 토론자가 지켜야 할 예절<sup>12)</sup>

- 서로 높임말을 쓴다.
- 실례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
- 남의 발언 중에 끼어 들며 발언하지 않는다.
- 너무 긴 시간 장황하게 발언하지 않는다.
- 진행자에게 예의를 표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 표 9 〉 토론전략표

	자기측 입론	상대 예상질문	자기측 답변	상대방 예상입론	질문	상대 예상답변	보충질문	결론/ 메모
내용	1.	1.	1.	1.	1.	1.	1.	
	2.	2.	2.	2.	2.	2.	2.	
	3.	3.	3.	3.	3.	3.	3.	
	4.	4.	4.	4.	4.	4.	4.	
	...	...	...	...	...	...	...	
근거								
논점 용어								
전략								

12) 민영욱, 2003, 『성공하는 사람들의 토론의 법칙』 가림 출판사, p. 104.

〈 표 10 〉 토론내용 흐름표

	공1 입론	부2 교차 조사	부1 입론	공1 교차 조사	공2 입론	부1 교차 조사	부2 입론	공2 교차 조사	부1 반박	공1 반박	부2 반박	공2 반박
내용												
메모												

〈 표 11 〉 토론판정표(CEDA 형식)

(분석력, 구체성, 논리성, 일관성, 명확성, 구성력, 수사)

	찬성측 첫번째 토론자		찬성측 두번째 토론자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입론 (15점 만점)								
교차조사 (15점 만점)								
반박 (15점 만점)								
기타 (5점 만점)								
개별 점수 (50점 만점)								
팀 총점 (100점 만점)	찬성측 총점 ( )점				반대측 총점 ( )점			

## 참 고 문 헌

- 민영욱, 2003, 『성공하는 사람들의 토론의 법칙』, 가림 출판사.  
 윤치영, 2009, 『1% 리더만 아는 토론의 기술』, 미래지식.  
 이상철·백미숙·정현숙, 2009, 『스피치와 토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전영우, 2003, 『토론을 잘하는 법』, 거름.  
 한상철, 2006, 『토론: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토론분석과 응용』, 커뮤니케이션 북스.